

심사의견서

[A 안]

배치계획에서 향후 증축성능과 수장고가 기물건물과 일정거리가 있어 아쉬움이 있으나, 대수벌재를 통한 개량구현은 우수함.

공간계획에서 관람객과 직원의 공간 분리가 적절히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관람객의 공간활용에 열린전시홀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좋은 것으로 평가됨. 연구소의 본연의 기능으로 하여금-세차실-유물정리실의 집중배치가 효율성을 높일것으로 보이며, 분식실이 '전시'채널로 사용될 점을 아쉬우나 처리실과의 연계성을 높인채로 활용성에 좋은것으로 판단됨. 수확성강로와 레라포타 마가새가 구별구체적이라 경화를 미흡점으로 보이며, 열화실 취선자를 위한 입면제안이 돋보임.

[B 안]

관람객배치 계획을 위한 동상자원계획은 해당 대상지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우수한 아이디어로 판단되나, 문화재연구소가 우선적 기능이 되어야 하며, 향후 공간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아쉬움이 있음. 직원을 위한 다양한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체력단련실의 배치, 처리실과 분식실의 공간구성, 하여금, 세차실 유물정리실의 공간 구성 및 열차에 아쉬움이 있음. 우수활용계획의 수장 및 에너지저장 시설등이 시공세하여 친환경계획을 추구하였음.

2021. 11. 5.

심사위원 : 박영정

(서명)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 귀하

심사의견서

[A 안]

한국적 조형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마당과 '켜'를 통한 차경을 도입하고자 한 점이 우수하다고 판단함. 배치, 공간계획,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친환경, 기술적 측면의 제반 평가항목을 완성도 높게 제안해 주었음. 추후 증축에 대한 방안과 외부공간 역시 보행자 및 방문자 위주의 한국적 미를 살려 디자인 한 점도 칭찬할 만함.

[B 안] 결과를 자체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은 있으나, 조형 및 공간구성 원리나 디자인 의도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 다이어그램 등이 부족한 점이 다소 아쉬움. 증정, 골목길, 계단 및 옥상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경사로 등에 대한 이유나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짐. 또한 증축이 되었을 때, 증축되기 전의 조형의 안전성보다 오히려 미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 우려도 됨.

2021. 11. 5.

심사위원 : 박상현 PARK SH

심 사 의 견 서

[A 한]

- 도시이동계획 및 배치계획이 있어 행정기관인 시·군 또는
중심계획이 관계 계획이나 관리으로 연계 할 수 있도록 계획함.
- 문화재인자 시설하는 기관 목록이 있어 프로그램의 대상이 (문화)
역사적 문화 유적은 자연인 등의 이익과 개발행위에 상충
할수있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는 장점으로 처리하는 문화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이, 이러한 기관목록이 목록화되어
도시의 편입이 있음.
- 중앙도시계획은 행정기관 및 시민기관과 상응하는 협의가 필요함.

[B 안]

- [illegible]

2021. 11. 5.

심사위원 : 이재인 (서명)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 귀하

심사의견서

[A 안]

- 내용량을 정보원으로 하였다. 자동차 출입구 주차장은 기둥이 하나, 주차대까지 상황으로 볼 때 북측면의 기둥이 하나만 패시브하다. 자측 출입구가 용이하다.
- 전경계획의 치나름 구성을 행태구성의 기둥으로 사각형이다. 자측의 사각형, 주차대 등 비교적 세련되게 처리해내서도 '문화재연구'의 느낌을 갖고 있다.
- 내부 공간의 동선 계획이 명쾌하다. 방음벽의 기둥 숫자를 늘릴 수 있으나 일관된 질서를 띠는 느낌이 없다.
- 동선 계획이 합리적이다.

[B 안]

- 거대한 정사각형 행태구성의 주요으로 작용했다. 대지의 위치, 방음벽의 기둥 숫자를 늘려주는 것, 북측면의 계획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행태적으로 완성도는 있다.
- 전경계획에서 자측들이 사각형의 부분의 코어를 중심으로 배치하듯, 동면상의 불규칙성이 보인다.
- 주차장의 구성, 2층 대강/주방으로 볼륨감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내부의 사각형 여러 개의 후대형 계획은 전체 구성으로 보면 과하다.

2021. 11. 5.

심사위원 : 0 | 호진 (서명)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 귀하

심사의견서

[A 안]

- 사업대상 토지를 충분히 활용하고, 외부공간도 계획도, 전통시장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긍정적임
- 연수 mass를 상·하층으로 구분하는 제원은 달리하여 분절화 것도 좋은 계획이라 판단됨
- 1층 세미나실은 내부의 기층이 많고 큰 공간이나 2층에서 기층이 삽입되는 것에는 구상과도 필요함.

[B 안]

- 주차장이 분리(방문객용, 직원용)되어 이용자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단 판단됨.
- 1층 방문객 출하구 지붕은 캔틸레버구조로 그 길이가 커 구조적인 검토가 요구됨.
- mass가 단일하게 구성되어 과대하게 보일 우려가 있으며, 1층부터 2층까지 연결된 보행자 통로는 효과적으로 보임.

2021. 11. 5.

심사위원:

성재중 (서명)

심사의견서

[A 안]

- 입지를 고려해 안정적인 외관을 가졌으며, 비교적 배치가 친절하게 됨.
- 미이더로 문제이지만 개방형 수장고에 대한 해석, 기관장모와 학예실 사이의 창문구조, 분석실비전실화 등 문제점을 재고할수록 좋음.

[B 안]

- 입지가 고려된 불안전성적인 외관을 보임. (불안정한 dead space, 정사각형 등)
- 연구실과 방문객을 완전히 갈라놓는 구조 (총 변로)가 마땅치 않음
- 기관장모의 배치 문제 (약 16m 폭이까지 방문객)가 맞으며, 불안전한 유리벽설의 배치도 문제 있음.

2021. 11. 5.

심사위원: 김 홍 리 (서명)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 귀하

심 사 의 견 서

[A 안]

모든 평가항목에서 '수, 등급'인.

[B 안]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에서만 '수, 등급'으로
나머지는 '수, 등급'인

2021. 11. 5.

심 사 위 원 김 동 권 (서명)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 귀하